

통신/방송 융합/제휴 환경하에서의
표준화 정책에 관한 검토보고서
[일본, 총무성]



2011년 2월

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

방송·통신 융합 표준화 정책 방향

일본 총무성, 정보통신심의회
(2011년 2월)

출 처 : http://www.soumu.go.jp/menu_news/s-news/01tsushin04_01000007.html

1. 개요

- 2009년 총무성의 「통신·방송의 융합·제휴 환경에서 표준화 정책 방향」(2009년 자문 제16호) 검토 요청에 따라, 제33회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정책 부회는 「검토위원회」를 구성
- 검토위원회는 2009년 9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1월까지 총 19회의 검토회의를 거쳐, 현재 총무성에서 이 답신에 대하여 의견수렴 중임
- 자문내용
통신·방송 융합·제휴 환경에서, 정보통신 고도화로 인한 이점을 널리 국민에게 환원하고,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표준화」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하여 다음 항목을 검토
 - 표준화 추진시 기본방침
 - 중점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분야
 - 국가가 수행할 조치와 그 추진체계

① 기본 사고

표준화 정책의 의의·목적

② 현황 검토

- 표준 분야와 내용
- 국내외 보급 현황

③ 「표준」 조건

- (1) 추진할 표준의 조건
- (2) 중시할 표준 분야
 - 「통신·방송 융합·제휴」 환경하에서 중시할 분야
 - 이후 중시할 「기능」

④ 「조치」와 「체제」

- (1) 조치
 - ①~③에 대하여 정부가 고려할 조치
- (2) 체제
 - 위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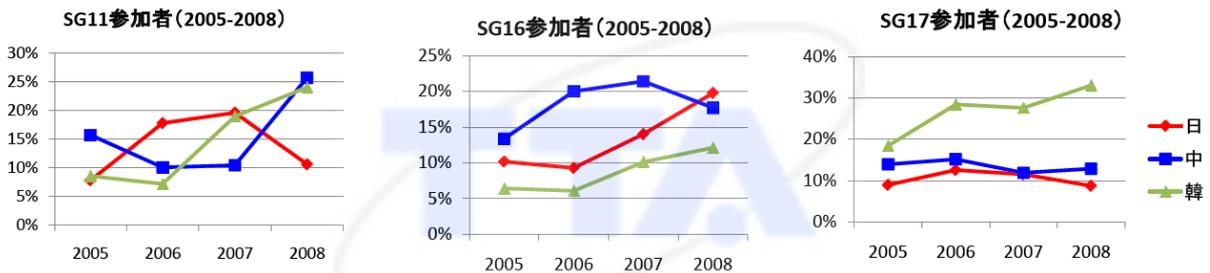
2. 답신의 주요내용

□ 검토배경 - 환경의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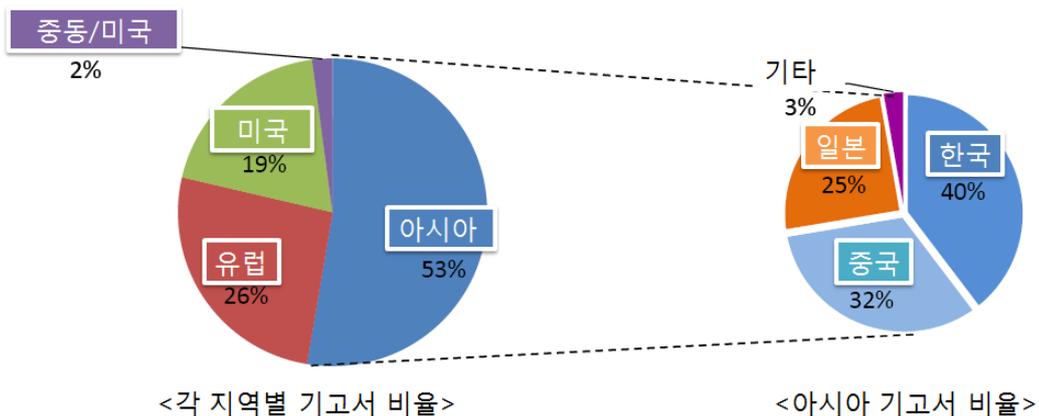
- 1) 방송의 디지털화, 통신망의 IP화, 인터넷 보급 확대 등 기술환경의 변화
 - 고도 및 복잡한 제품서비스가 1 국가 또는 1 기업의 기술만으로 곤란하게 됨
 - 사업자 간 글로벌한 기술 공유, 제품·서비스 개발에 역할 분담이 보편화
 - 시장에서 사용자 주도 경향이 커지고, 제품·서비스 고도화 속도가 가속화

- 2) 표준화 활동의 다양화
 - 포럼 등에서 먼저 사업자간 표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, 공식표준화기구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많아짐
 - 공식 뿐만 아니라 사실표준화기구에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

<참고> ITU-T에서 회의 출석자 비율 추이



<참고> ITU-T 기고서 제출 비율



3) 갈라파고스* 현상이 심화

- ICT 분야에서 일본의 제품·서비스의 국제경쟁력에 대하여 소위 '갈라파고스화'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; 따라서
- 공식·사실 양쪽 표준화기구에서의 일본의 위상 향상이 필요

-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제품·서비스 위상 향상 필요

* 갈라파고스 : 남아메리카로부터 1000km 떨어진 섬

□ 표준화 정책의 필요성

1) 소비자·이용자 측면

- 선택의 폭 확대 :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공개표준의 채택, 다양한 사업자 진입으로 선택의 폭 확대, 비용 절감
 - * 소비자는 기술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며, 표준기술과 상호접속에서 나오는 편의성 자체를 원함
- 안전성등의 확보 : 제품·서비스의 신뢰성, 안전성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표준화하여 소비자·이용자 보호

2) 제품·서비스 제공자 측면 : 국제경쟁력 향상

- 시장규모 확대 : 제품·서비스에 관한 동일 표준을 채택한 국가기업 확대로 시장규모 확대
- 경쟁력 강화 : 표준화 활동은 시장에서 성공을 위한 수단에 불과, 글로벌한 지지를 얻어 일본 기업의 상품·서비스 전략에 맞는 표준을 보급하여 제조 비용 등 절감, 국제경쟁력 강화

□ 환경변화에 대응한 표준화 정책방향

1) ICT 분야 기술환경 변화 → 신속하게 대응가능한 체제, 소비자·이용자 참여

- 행정 검토체제의 슬림화, 소비자 참여
- 민간기업 등의 활력, 이니셔티브 활용

2) 글로벌 표준화 「장」의 변화 → 표준화 정책 대상의 확대

- 포럼이나 컨소시엄 표준화가 중요해짐에 따라, 포럼 표준화 정책도 포함
- 중점분야표준화 활동 지원 방안 검토

3)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위상 변화 즉, 소위 「갈라파고스화」 대응 →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, 기여 확대

- 국내외를 불문하고, 표준화 활동에 기여
- 일본발 국제표준화도 중요하나, 우수한 표준안이라면 해외발 국제표준이라도 일본내 기업의 기술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규격으로 만들어 국제표준화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도 중요

□ 표준화 중점분야 선정시 고려사항

1) 공개 표준일 것

※ ITU-T(GSC) 정의

-
- 공개제정절차 -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있을 것
 - 적절한 균형 - 특정 이해관계인이 독점하지 않을 것
 - 적절한 과정 -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반영할 것
 - 지적재산권 - 지적재산권 보호, 이는 무료 여부를 묻지 않음.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표준화 기구는 개입하지 않음
 - 품질과 자세한 수준 - 상호운용가능한 제품과 서비스 경쟁을 허용할 정도로 충분한 수준
 - 이용가능성 -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규격 및 이용이 용이. 표준 문서는 표준화단체가 허용하는 경우에만 제3자 참조 가능
 - 지원 계속 - 어느 정도 장기간 보호지원
-

2) 평가·검증 가능한 구체성·특정성

3) 소비자·이용자에 대한 영향, 국제경쟁력 향상의 중요성

□ 표준화 중점분야

- 「검토위원회」에서 10개 중점기술 분야 선정 제안
 - ① 환경부하 저감 홈ICT, ② 3D, ③ 전자서명, ④ 차세대 브라우저, ⑤ DECE, ⑥ IPTV, ⑦ IP다운로드, ⑧ 오픈 ID, ⑨ 모바일바코드, ⑩ 센서네트워크
- 총무성, 「글로벌시대 ICT정책 TF」 5개 중점분야 제안
 - ① 홈네트워크, ② 클라우드, ③ 차세대 브라우저, ④ 3DTV, ⑤ 전자서명
- 지적재산전략본부, 「지적재산추진계획 2010」에서 7개 분야 선정
 - ① 다운로드, ② 3D, ③ 전자서명, ④ 차세대 브라우저, ⑤ 스마트그리드 등

이상의 중점분야 중 위 <고려사항>을 기준으로 하여,

① 홈네트워크, ② 클라우드, ③ 3DTV, ④ 차세대브라우저, ⑤ 전자서명 등 5개 분야를 중점분야로 검토하기로 함

3. 정리 및 향후 추진방향

이번 자문은 「표준화 환경변화」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려하였으나, 1) 일본 총무성 「정보통신심의회」 표준화 검토 체제 개편 및 2) 표준화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 등 일반적인 제안을 담고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「정보통신분야 표준화 정책 검토위원회」(2011.2월 신설)에서 논의할 예정임

